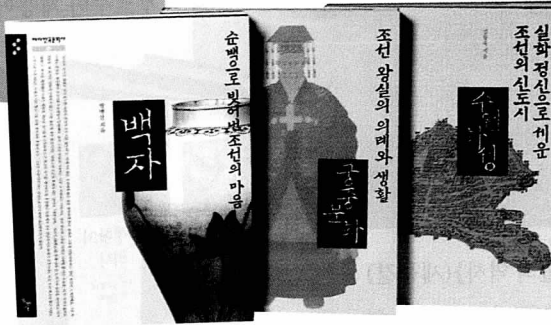


테마별로 가려 뽑은 한국문화의 정수

둘베개 <테마한국문화사> 시리즈 1차분 출간

둘베개의 <테마한국문화사> 시리즈 1차분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방병선),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신명호),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김동욱) 등 세 권이 나왔다. 《백자》는 조선백자가 왕실 전용 그릇으로 채택된 과정과 배경, 제작 체제, 양식의 변천 과정 등을 살폈다. 《궁중문화》는 조선 시대 역사와 문화의 중심축을 이뤘던 궁중문화를 왕과 왕비의 역할과 삶, 이들을 둘러싼 궁중 의례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수원 화성》은 화성 축성에 상용된 새로운 건축 사상과 기술, 축성방법을 살피면서 '성곽'이 아닌 '성곽도시' 수원 화성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이 시리즈가 처음 기획된 것은 1999년. 1990년대에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감상 행위가 일반화·대중화되면서 답사여행이 붐을 이루고 전통문화에 대한 책들이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했지만, 성숙된 대중들의 지적·문화적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형 기획물은 출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둘베개가 이 시리즈를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문



둘베개/B5변형/270면 내외/각 18,000원

화사의 면면에 관한 총체적인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겉핥기가 아닌” “일면적으로 보지 않는” “재미있으면서도 깊이를 갖춘” 정리작업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작업이어서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필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했다. 각 분야의 석·박사 논문을 조사해 읽은 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필자를 선정했다. 필자가 원

고를 달고한 후부터는 지은이와 편집자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고 이미지 자료를 꾸준히 보충했다. 수시로 편집자와 사진작가가 동반해 취재하고 촬영했고, 작품 사진과 그림 등의 자료는 소장처를 파악해 지적 저작권에 대한 이용 승인 절차를 거쳤다. 시리즈 이름은 5백여명의 독자, 출판편집자, 지은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모해 결정됐다.

20여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앞으로 건축물, 공예품, 조각, 회화, 민속놀이와 전통 의례 등 전통문화와 민속·예술 등 한국문화사의 진수를 테마별로 묶어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김정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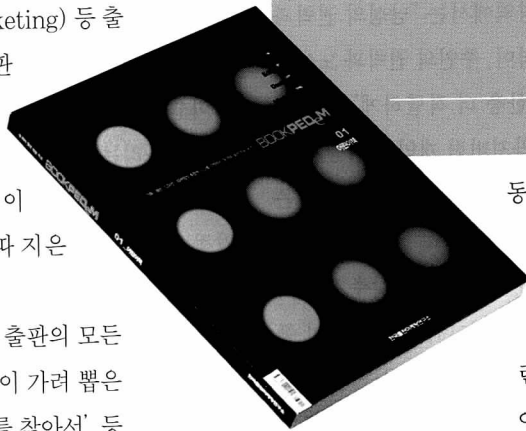
원(one) 테마 출판전문 무크를 표방하는 《북페덤(BOOKPEDeM)》(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이 지난 3월 창간됐다. 기획(Planning), 생산(Editing), 디자인(Design), 마케팅(Marketing) 등 출판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안목이 출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북페덤》은 기획·생산·디자인·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페덤'이라는 책이름도 각 영어 단어의 머릿글자를 따 지은 것이다.

창간호는 '어린이책'을 주제로 '어린이책 출판의 모든 것' '어린이책 출판이 걸어온 길' '전문가들이 가려 뽑은 분야별 베스트 북' '해외 어린이전문 출판사를 찾아서' 등 출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기획해 원고청탁에 재청탁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연말에 원고를 마무리하고, 270여쪽에 이르는 어린이책 현장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어린이책을 기획·집필·편집·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이 도제식으로만 물려줄 수 있었던 고유한 지식과 체험을 직접 만든 책을 예로 들며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들이 몇 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쳐 얻은 지식은 각각 그림책, 논픽션 책, 창작동화, 디자인 분야로 나뉘어 어린이책 출판관계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을 제공한다. 활발하게 활

출판현장의 모든 것 담은 전문 무크지

《북페덤(BOOKPEDeM)》 창간돼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A4변형/272면/25,000원

동하고 있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어린이책 출판에 공헌이 큰 사람을 소개하는 난은 어린이책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자 하는 예비출판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어린이책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도서상 소개, 어린이책 관련 신문기사 분석도 알찬 정보다.

편집위원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미화

실장은 “어린이책 출판의 10년 성과를 정리·반성하고, 실무자는 물론 어린이책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이 곁에 두고 볼 만한 자료 가치가 높은 책을 목표로 한다. 학문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장 출판인의 살아 있는 경험과 정보를 담아 후배와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며 창간소회를 밝히고, 올 7월에 선보일 제 2권의 주제는 '기획'이라고 귀띔했다. —차정신 기자